

‘우리는 획일화를 거부한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토론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참여위원회가 제9회 학생인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2일 오후,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우리는 획일화를 거부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도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

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학생인권실태 현황’, ‘인권우호적인 우리 학교 모습’ 발표와 함께 분임별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분임별 토론으로 △우리는 획일성을 거부한다 △자랑하고 싶은 우리 학교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 결과는 학생참여위원 임원진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학생인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교육의 주제로 인정받고 참여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이며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최근 브릿지의료인회와 협력해 국제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진행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그림책 원화전 개최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박해정)이 ‘아이들, 상상 속에서 놀다’를 주제로 그림책 작가 장선환의 원그림 작품 및 전시물을 만나는 2019년 그림책 원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화전은 3일부터 30일까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4월 한달 간 공룡, 갯벌, 동물, 로봇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의 그림책, 역사 그림책, 교과서 수록 그림 등의 원화와 스케치작업, 집필도구, 포스트존 등 상상을 그리는 장선환 작가의 다양한 그림책과 콘텐츠들이 전시된다.

개별관람은 전시간 중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그림책 전시 코너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와 4시에 관람하면 그림책 해설 및 전시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장선환 작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그림책 속 그림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책 작업 과정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강연이 6일 오후 2시 운영되고, 그림책 구성과 표현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강연이 25일 오후 7시 운영된다. 또 가

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연동화 및 책놀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방법은 회관 누리집(mh.je.go.kr/jc)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선환 작가는 화가이자 그림책 작가로 활동했고, 쓰고 그린 책으로는 ‘네 등에 집 지어도 되니?’, ‘우리가 도와줄게’, ‘아프리카 초콜릿’, ‘안녕, 파크봇’, ‘갯벌 전쟁’, ‘아빠새’가 있고, 그린 책으로는 ‘임진록’, ‘망속 나라 도둑 괴물’, ‘햇볕 동네’ 등 다수의 책이 있다. 이 외에도 네이버 캐스트 ‘인물 한국사’에 그림을 연재했고, 현재 한겨레신문 ‘앞선 여자’에 그림을 연재 중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국제학생 대상 무료 진료 진행

전주대학교는 브릿지의료인회(BMA, Bridge Medical Association)와 협력해 국제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료에는 브릿지의료인회 정성남 회장(광주 탐정형외과 원장)을 비롯해 전문 의료진 15명과 치과, 의대, 간호대, 약대 학생 및 자원봉사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유학생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치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등 다양한 전문의에게 검진받고 증상에 따라 약 처방까지 받았다.

또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 국가별 통역 봉사자도 참여했다. 또,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지역 병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료도 제공했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원장 류인평)은 ‘건강한 유학 생활 지원’을 목표로 3년 전부터 연 4회에 걸쳐 전문 의료

진을 초청해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대 유학생 월가아르만(공골)은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가지 못했었다”라며,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와 무료로 진료해주셔서 건강을 유지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브릿지의료인회 정성남 회장은 “국제 유학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료혜택을 모두가 받지는 못하고 있다”라며, “작은 재능이지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재학 중인 1,400여 명의 국제학생의 건강한 유학 생활을 돕기 위해 대학 주변 6개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제학생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쾌적한 교육환경 ‘앞장’ 한일장신대 사격부, 첫 대회부터 우수한 실력 선보여

도교육청, 현장 인식 개선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2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미세먼지 담당자가 매뉴얼 숙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미세먼지 발생 시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등 미세먼지 대응조치 전반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모바일 어플 ‘우리동네 대기정보’ 및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미세먼지 수치, 예·경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해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인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국대회서 금4 은1 획득 ‘쾌거’

창단한 지 불과 한달도 안된 한일장신대학교 사격부가 전국대회에서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2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한일장신대 사격부가 올해 첫 출전한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등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학 사격부의 경우 지난달 18일 창단식을 가진 신생팀이지만 창단 후 첫 대회부터 우수한 실력을 선보이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 사격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일장신대 사격부는 최근 대구에서 열린 제31회 대한연맹기 전국대학생사격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성윤호와 박재호, 경원빈, 이웅원은 공기권총 단체 경기와 50m 화약권총 단체 경기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성윤호는 단체경기 1위를 비롯해 공기권총 개인 1위, 50m 화약권총 개인 1위 등 우수한 실력을 선보이면서 이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또 오세용은 산탄총 트랩 개인 경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한일장신대 사격부가 최근 대구에서 열린 제31회 대한연맹기 전국대학생사격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도 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창단하자마자 한일장신대 사격부가 전북체육 위상을 드높이고 있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의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며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주시는 지도자와 구원서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장신대는 지난달 하키부와 사격부, 테니스부 등 총 3개 종목의 운동부를 창단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보호필요학생 담임교사 연수 실시

전북교육청이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임(담당)교사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일 국립전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병원학교 등록 학생과 원격수업 수강학생의 소속학교 담임교사, 전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담당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 장학사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건강장애 학생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보호필요 학생은 질병·화상·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

료가 필요해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을 뜻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 연속성 및 또래관계 유지,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위해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꿈사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등 원격수업 위탁기관 이용방법과 전북대병원 내 한누리병원 학교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또 건강장애 학생의 출결처리, 성적처리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지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